

건강과수꾼 역할 '톡톡'

부안군 보건소 노종열 보건행정팀장

부안군 보건소 노종열 보건행정팀장은 군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주의를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정감 어린 보건소 문화와 사람이 넘치는 보건소 내집 같이 편안한 보건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부안군 보건소 행정팀장은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차량 등 지역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에 보건복지부 등에 뛰어다녀 1억6천3백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 보건행정팀장은 저소득 주민의 각종 암 질환을 조기발견, 등록, 치료로 치료율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해

를 위해 건강 취약 계층의 암 조기검진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홍보 강화로 암 조기 검진을 향상에 앞장 저소득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연속지원함으로써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에 앞장서 왔다.

또 진료중심 업무에서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보건지소·진료소 직원을 통합한 지역



노종열 보건행정팀장

팀 제를 운영, 면 단위에 위치한 보건지소, 진료소를 5개 권역으로 묶어 주산, 계화, 하서, 보안, 위도 등 거점 보건지소를 지정,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보다 적극 찾아 업무매뉴얼 개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로 보건지소의 역할 강화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노 보건행정팀장은 일선 보건기관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로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건강과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지역발전엔 헌신봉사,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내 일같이 도와줌으로써 위민봉사정성의 구현과 인정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재능기부로 정(情)넘치는 도시 조성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는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독거노인, 저소득층, 요양병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30일 사랑의 노래 공연 봉사활동에 나섰다.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준 지역민들에게 뭔가 작은 일부터 봉사로 보답해 보자는 귀농귀촌인의 마음이 모여 3년째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귀촌협의회는 이번 금산 평지마을경로당 재능기부로 시작으로 김제 효도림 요양병원과 미래요양원 예술 공연 재능기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의 벽지와 장판 교체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시와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재능기부활동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귀농귀촌인 안전정착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조정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각자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청소년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 실시

진안군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박 6일간 지역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은 관내 학생들에게 지역을 돌며 진안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배우는 지역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탐방은 폭염에 대비하여 신체적으로 유약한 초등학생은 1박2일 일정으로 마무리 하며, 매년 4개 면을 탐방했던 것과는 달리 트래킹 할 수 있는 구역을 줄이기 위해 진안읍만을 탐방하기로 결정했다.

진안읍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역사와 생활,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우리 고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郷심을 기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내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 함양뿐만 아니라 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책임감과 상호간의 배려, 협동과 갈등해결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익힐 것으로 기대된다.

탐방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지역 탐방과 환경보호운동 마을체험, 요리경연 대회, UCC제작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소성면, 중복 맞이 수박 나눔 행사

정읍시 소성면은 중복인 지난 27일 북담입 행사를 갖는 지역 내 8개 마을에 수박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면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불편 사정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행정 일환으로 수박을 전달하고 예로사항 등도 청취했다"고 말했다.

면은 이에 앞선 이달 초 36개 마을 경로당 냉방기를 점검·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원시, 판소리 통한 교통안전홍보 '눈길'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최근 남원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시청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 야간에 밝은 옷 입기, 이륜차(사발이) 운전시 안전모 착용하기 등 교통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또한 조후영 운봉파출소장이 실시한 판소리를 활용한 교통안전에서는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을 어르신과 함께 부르며 교육에 호응을 받았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 다문화가족 센터 에바다 '시원한 여름나기'

임실군 다문화가족 센터 에바다(센터장 박재만)는 지난 28일 다문화가족들과 자원봉사자 등 90여명과 함께 거제도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문화가족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과 함께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행사는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줘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에바다 센터는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조기정착과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고창서 청문실, 하반기 내부고객 공감 청문활동 내실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하반기 인사철을 맞아 본서 및 지·파출소를 방문 공감받는 청문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휴가철과 맞물려 있는 시기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평상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하며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예로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는 등 내부고객 만족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인사철과 휴가철의 들뜬 분위기에 마음을 놓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